

02

엘살바도르

그들은 나를 닮고,
나는 그들을 닮고

- › 활동기관 : 엘살바도르 교육부
- › 자문분야 : IT
- › 자문내용 : IT 진흥정책 자문
- › 성 명 : 손 경 호



우리나라의 약 1/5,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면적(21,041km²)에 600여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미 국가 중 유일하게 대서양에 접하지 않고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20년이 넘는 자동차에서 뿔어져 나오는 매연이 환상적인 날씨와 공존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화산을 만날 수 있는 나라. 높은 살인율이 보여주듯 치안이 불안하지만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수 있는 나라. 이곳에서 자문관으로 생활한 3년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일화를 통해 조금은 생소한 엘살바도르를 소개한다.

내 소홀함으로 상처를 받았을 그들을 생각하며

2012년 8월,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떠나던 여정에 올랐다. 경유지인 LA까지 약 14시간, 또 다시 5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산살바도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끝내고 저녁 7시가 다 되어 서야 공항을 빠져나오니 먼저 온 동료들과 KOICA 사무소 직원, 그리고 내가 근무하게 될 교육부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다소 피곤하기도 했고 복잡한 공항을 어서 벗어나고 싶어 교육부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만 나눈 뒤 기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 1) 엘살바도르 서부에 있는 활화산, 이살코(Izalco) 화산
- 2) 산살바도르의 보케론(Boqueron) 화산
- 3) 산타아나의 코아떼페께(Coatepeque) 호수

KOICA 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가는 길. 문득 일요일임에도 나를 위해 일부러 마중 나온 교육부 직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이런 찝찝함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은 6개월이 지나서였다.

사무실 직원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 스스럼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들이 그날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문을 몰랐던 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마중을 나왔던 담당 과장에게 물었다. 말로는 별 일 아니라고는 했지만 표정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계속 다그치니 그제야 그날의 사건(?)을 얘기해 주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한국인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그들은 나를 위해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직원 한 명을 호텔에 대기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내가 자신들의 차를 타고 호텔까지 함께 가리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온 손님은 KOICA 직원의 차를 타고 떠나 버리더라. 얼마나 황당했을까.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밤길에 사고까지 났으니 무척 속이 상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지난 일이지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그나마 사람은 무사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 수리비를 주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으로 처리했다며 잊어버리라고 한다. 사실 당시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했다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이



3년간 배려로 지원해 준 파띠마(Fatima) 과장과 막스(Max) 계장(우측 사진의 왼쪽분)과 함께

라고 했다. 그날의 일을 알게 된 후 나는 순간적인 소홀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3년 내내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했다.

회의실과 사무실이 공존하는 곳에서

현지에 도착한 이튿날.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치서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했다. 현지 KOICA 사무소의 도움으로 휴대폰 구입, 은행 계좌 개설, 비자 연장 등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다음 날에는 내가 근무하게 될 교육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6~7명의 정보국 간부들과 상견례를 했다. 그중에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마중 나온 과장과 계장뿐이었다. 내 담당 과장이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었지만 어색한 스페인어 때문인지 도대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나와 같이 근무하게 될 정보시스템팀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반갑게 악수를 하며 통성명을 했지만 16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했다. 오로지 기억나는 이름은 ‘로베르토(Roberto)’뿐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로베르토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만 세 명이니 이마저도 헛갈렸다. 그래도 함께 일할 팀원들의 이름은 외워야겠기에 과장에게 팀원들 이름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름 옆에 ‘똥똥함’, ‘말이 많음’, ‘조용함’, ‘턱수염’, ‘얼굴이 붉음’ 등 직원들의 특징을 적었다.

사무실 환경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협소한 내부 공간, 책상 위에 방치된 문서들,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기선 등 기본 인프라도 기대 이하였고, 그나마 정리 정돈 상태도 상당히 불량했다. 하지만 이런 첫인상은 훗날 그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직원들과의 인사를 마친 후 내가 근무할 자리로 확인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처음에는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줄 알았다. 나를 위한 환상적인(?) 자리는 다름 아닌 회의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이었다. 담당 과장에게 “회의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며 투정을 했

더니 딱히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 이전 국장도 이 자리에서 근무했다며, 그나마 이 자리라도 확보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양해를 구했다. 어찌겠는가! 내가 화려하고 안락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나마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걸 보니 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1년 동안 회의실 안팎을 오가며 근무를 해야 했다. 회의실이 부족한 탓이 온갖 부서가 수시로 드나들었다. 회의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빵을 뜯어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드는 통에 가끔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루는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꼬스뚱브레(관습)”이라고...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로서는 그들의 얘기가 소음처럼 느껴졌다. 초기에는 슬그머니 회의실 밖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피하는 장면을 본 직원들이 미안했던지 사전에 회의를 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회의를 하면서도 힐끔힐끔 내 눈치를 보았다. 어찌보면 나 또한 그들의 공간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하지 않던가! 환경에 익숙해지고 스페인어와 영어를 짬뽕한 ‘스팽글리쉬’나마 구사하게 되면서 어느새 나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있었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다행히 사무실 환경 개선 덕분에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바깥 사무실 한쪽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회의실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엘살바도르에 대한 애정도 커질 수 있었던 것 같다.



1년 동안 정들었던 회의실 내 자리, 회의실을 탈출해 자리 잡은 새로운 자리

2달러 사연을 회상하며

생일을 맞이하는 동료들 축하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금요일이며 모든 팀원들이 외교부 밖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팀원이 약 20명이니 매일 1~2명씩 생일을 맞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식사 장소는 팀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데, 보통 일주일 전쯤에 이메일을 통해 선호하는 레스토랑을 추천받아 다수결로 정했다. 다시 2~3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레스토랑의 웹 사이트를 공지했고, 저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미리 메뉴를 선택했다. 당일에는 짧은 점심시간을 아끼기 위해 음식을 미리 주문하는 치밀함까지... 자신이 먹은 음식 값은 각자 내는 것이 원칙인데, 생일을 맞이한 동료의 식사비를 위해 추가로 1달러씩 더 거뒀다.

2012년 8월 말, 기관에 출근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담당 과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다. 처음으로 가는 현지 레스토랑이라 모든 장면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너무 예쁘고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갑자기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과장에게 물으니 식사비가 예상보다

2달러 정도 더 나왔다는 것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며 5~6명이 남았다. 금방 끝날 것이라 예상하며 나도 과장과 함께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여러 사람



- 1) 2달러 일화가 있었던 레스토랑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 2) 처음 먹었던 예쁘고 맛있는 현지 음식
- 3) 중남미의 전통 음식 세비체(Ceviche)(우)

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 같다며 내가 2달러를 주겠노라 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한다. 잠시 후 문제를 해결했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협상 팀(?)이 돌아왔다. 일부 음료수 가격이 올랐음에도 레스토랑 웹 사이트에 가격을 수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니 레스토랑의 책임이라는 우리 측 주장을 레스토랑에서 수용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2달러 때문에 생긴 이 일화는 그 후에도 이따금씩 생각났다.

나를 망고라고 불렀던 할머니 종업원

많은 엘살바도르 직장인들은 인근 카페테리아나 길거리 식당에서 대략 2~3달러짜리 음식을 사오거나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다. 내가 근무하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나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의 저렴한 식당으로 나서곤 했다. 3년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용한 저렴한 식당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곳을 'Pollo Champero(뿌요 참빼로)'라고 불렀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 치킨 레스토랑인 'Pollo Campero(뿌요 캄빼로)'를 나름대로 변형해 만들어 낸 말이었다. 여기서 'Champero'는 저렴한 천막 식당 같은 곳을 의미한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점심시간에 가장 자주 이용한 식당이었다. 특히 주인 아주머니와 종업원들이 상당히 친절했다. 며칠만 가지 않아도 동료들에게 왜 내가 안 오느냐며 걱정할 정도로 정 많은 분들이었다.



나를 '망고'라 불렀던 식당 할머니

하루는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음료수를 나르던 할머니가 나에게 '망고(mango), 망가소(mangazo)'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 말에 동료들의 웃음이 터졌고 얼떨떨한 나는 그들에게 왜 웃느냐며, 오늘 마신 음료가 망고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며

또 웃는다. 알고 보니 ‘망고’는 열매 이름인 동시에 잘 생긴 사람, 즉 미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다. ‘망가소’도 같은 의미였다. 장난기가 발동한 난 할머니께 동료들 중 ‘망고’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단다. 나만 ‘망고’란다. 이 말에 동료들의 박장대소가 또 한 번 터졌다. 그분의 눈에는 내가 어지간히 잘 생겨 보였던 모양이다.

왜 현지어를 배워야 하는가?

교육부에 출근을 시작할 당시 영어 대화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담당 과장, 계장)와 일부 직원 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무슨 말인지도 도통 알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다. 초기에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통·번역을 해 줘서 교육부 직원들과 인사를 하거나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고유 업무가 있는지라 언제까지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명색이 그들을 위한 자문관으로 파견되었는데 정작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현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습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간혹 해외에서 한국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몇몇 사람들로 한정된 활동은 자칫 편협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현지 활동에 함에서도 오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스페인어가 절실했다. 일상생활, 즉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거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보디랭귀지로는 한계가 있었다.

사무실에 출근하던 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담당 국장이 “다음에 만날 때는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자”며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 스페인어를 모르는 나와 영어를 못하는 국



공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장이 만났으니 피차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몇 달 후, 국장의 생일 축하 회식에 가는 길에 국장과 같은 차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나는 스페인어로, 자신은 영어로 대화하자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스페인어를 꼭 배우라는 무서운 협박이었다.

현지 도착 후 한 달쯤 지난 토요일이었다. 이발소에서 이발사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발사도 답답했는지 대뜸 벽에 부착된 사진을 가리켰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손짓 발짓으로 간신히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구경도 할 겸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다니다가 그만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어로 길을 물었지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영어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느낀 날이었다.

두어 달이 지나 담당 과장에게 스페인어를 배울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원이 드물었고, 개인 교습은 비쌌다. 결국 담당 과장에게 스페인어 강의를 부탁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내 제안을 승낙했다. 담당 과장은 한때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고, 영어도 능통했다. 그러나 굳이 그녀에게 부탁한 것은 스페인어 교습 외에 자연스레 교육부 내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

비록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잇는 기이한 현상으로 진도는 느렸지만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스페인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 낼 수 있었다. 물론 세미나, 회의 등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했지만, 최소한 그들 속에서 그들의 고민과 소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직원들 덕분에 스페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문관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한국 사람들끼리만 만나거나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봤다. 이쯤 되면 업무 효율 저하는 차치하더라도 현지인들과의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적인 의사소통과 유대를 위해 적어도 현지 동료들과 맥주 한 잔 마실 정도의 현지어는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행복 지수 혹은 체념 지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행복 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엘살바도르 역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며, 지금도 한국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내가 먼저 동료들 자리를 돌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은 20대부터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모두가 나보다는 한참이나 젊은 친구들이었고, 심지어는 내 아들보다 어린 직원도 있었다. 물론 어린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회의적인 순간



남자 직원들과 여직원들

도 있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언제나 내가 먼저 손을 내 밀었고 그들 역시 내 진심을 알아 주는 듯했다.

내가 “¿Cómo estás?(꼬모 에스따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대답은 언제나 “Bien(비엔, 좋아요) 또는 Muy bien(무이 비엔, 매우 좋아요)”이다. 간혹 그들이 “¿Y usted?(이 우스떼드, 당신은요?)”라고 묻곤 하는데, 그럴 때면 난 습관대로 “más o menos(마스 오 메노스, 그저 그래)”라고 답하곤 했다. 그럴 때면 현지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por qué?(쁘르께, 왜?)”라고 묻는다. 그러면 내가 되레 왜 그러냐면서 한국에서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좋은 일도 없을 때 “그저 그래”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저 그래”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실제로 3년간 현지인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긴 하다.

늘 즐거운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 항상 좋으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 딱히 거창한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대답이 너무 소박해 깜짝 놀랐다. “굶지 않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니 그것만으로 좋지 않은가.” 이처럼 당연한 말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때로는 불행하다고까지 느끼고 있으니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빠듯한 공무원 월급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투잡(Two Job)을 한다. 교육부 내에서 빵이나 샌드위치 판매하거나 미리 점심 식사 주문을 받아 집에서 만들어 배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제 가죽 지갑 제작·판매, 쿠키 판매, 중고 휴대폰 판매 및 수리, 개인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종류의 부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판매 직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잘 웃는다. 하지만 어쩌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을 행복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는 3종류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고 한다. 행복 지수라는 잘못된 통계를 우리가 너무 맹신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현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담당 과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에스페레!(Espere)” 엘살바도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단어란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 줄도, 왜 보냈는지도 몰랐다. 담당 과장에게 물어도 스스로 터득하란다. 하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은행을 방문할 때 번호표를 받는데 내 차례가 언제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련번호가 아니라 은행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 예측이 되지 않는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내 포기한 적도 여러 번.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여지없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곳에서는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요청해도 바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대기 손님이 많아 빨리 자리를 비켜 주고 싶은데도 말이다. 거스름돈을 받는 데에만 10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담당 과장이 세관에 책을 한 권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당장 급한 일이 없던 나는 구경도 할 겸 따라 나섰다. 지루할 수도 있으니 각오하라는 과장의 말에 책 한 권 찾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꼬박 세 시간이 걸려 책 한권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지루해 하거나 초조한 기색이 없었다. 이날 나는 “에스페레”의 진수를 경험했다.

진심과 노력 없이는 공감대 형성도 없다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난 후 담당 과장에게 직원들을 위한 IT 관련 세미나를 매월 1회씩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IT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를 미리 통보해 주면 최선을 다해 전파하겠다고 했더니 반색을 한다. 이 또한 나의 임무 중 하나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 세미나는 2년 이상 계속되었다. 사무실 직원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었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를 비롯한 한국 사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가끔씩 서너 페이지를 스페인어로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통역을 해주었다. 한국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절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도 한때 너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다. 기술 관련 내용뿐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 회의 문화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업무 혁신의 경우 개선 제안 활동을 추진하여 우수 직원을 포상하기도 했다.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김밥과 비빔밥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형님이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비록 완벽하게 통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눈빛과 몸짓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이를 뛰어 넘어 그들과 격의 없이 지냈다. 이러한 나의 작은 노력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모양이다. 3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리고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 그들은 내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갔다고. 보고 싶다고.



1) 사무실 직원들과 한국 식당에서 2) 해변에서의 워크숍 후 직원들

불평이 많아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불평을 잘한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내가 3년 동안 그들에게 자주 했던 말도 “불평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였다.

3년 동안 출퇴근했던 교육부 앞 도로는 내가 귀국할 때까지 교통 체증과 무질서로 항상 혼잡했다. 인근에 중앙은행, 의회, 노동부, 경제부, 치안 부처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한 정부 청사임에도 중앙선 표시는 불분명하고 도로 곳곳이 언제나 폭 패여 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때로는 없어도 되는 곳에서 있거나 필요 없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될 수신호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이 없으니 불평이 있을 법도 하지만 경적만 누를 뿐이다. 담당 과장 차를 타고 같이 퇴근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본인도 불평이 있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한다.

휴가 기간이면 인근 국가로 버스 여행을 다녔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였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 편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저녁에 출발해 15시간 넘게 걸리는 버스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두꺼운 옷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설친 적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에어컨이 돌았다.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버스가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이 밀려 왔다. 너무 추워 가이드에게 에어컨을 잠시 꺼 줄 것을 부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또 틀어댄다. 뒤를 돌아보니 모두가 웅크려 담요를 덮어쓰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에어컨 바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휴식을 위해 잠시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몇 사람에게 버스 내부가 춥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추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기사에게 에어컨을 꺼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옷을 뿐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오랜 내전을 거치며 웬만해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어쨌든 이 여행 이후 버스의 에어컨은 내가 여행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키워야

엘살바도르는 거의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국가 채무가 많다 보니 차관도 원치 않는다. 자원도 없는 데다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처럼 변변한 마야 유적지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많이 받는다. 내가 속해 있는 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 줄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내게 큰 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 달쯤 지나 교육부 과학기술차관 및 국장들이 모인 'IT 위원회'에서 내가 보고 느낀 교육부의 IT 관련 문제점과 제언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은 여러분이 주역이다. 만약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출발 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인식의 변화'가 내 활동 철학이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에게 숙제를 내고 토의를 유도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자문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고 활동 노하우였다.

내가 속한 사무실 책장만 봐도 많은 정책과 전략들이 사장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모른 채 한국의 모범 사례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쨌든 '교육부 IT 진흥 정책'이 나의 주된 임무이었

기에 담당 과장에게 T/F팀을 만들어 우선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속한 부서 내 간부 6명으로 팀을 만들어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저마다 바쁜 업무가 있었기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화도 내고 가끔은 달래기도 하면서 독려했다. 매주 숙제를 내면서 쉼 없이 동기를 부여했다. 저녁 식사와 한잔의 맥주로 팀워크도 다졌다. 우여곡절 끝에 8개월 만에 드디어 완성. 담당 과장이



현지 과학기술차관이 참석한 '사랑의 그린 PC 기증식'.
(좌측이 김병섭 대사)

‘IT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내부적으로 승인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담당 과장이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월드뱅크에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이번에 만든 계획을 보더니 2년 전에는 아무 것도 없더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며 지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이후로도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큰 보람을 느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고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OECD/DAC의 목표 중 하나이자 우리 자문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까시 살바도레뇨”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수프 종류가 제법 많다. 평소에 국이 있어야 식사를 하는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 중에서 “Sopa de pata(소빠 데 빠따)”라는 것이 있는데 야채를 넣은 한국의 우족탕과 비슷하여 가끔씩 점심으로 먹기도 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재래시장에 가자고 한다. 엘살바도르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면 시장에서 이것을 먹어야 한다며 나를 이끌었다. 평소 가던 식당과 달리 시장에 있는 식당들은 지저분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많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에게서 “넌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으니 엘살바도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공감대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듯해 뿌듯했다.

내가 파견되고 2년 동안 NIA의 ‘사랑의 그린 PC’ 프로그램을 통해 엘살바도르 교육부에 중고 컴퓨터 500대가 기증되었다. 첫째 200대는 내가 파견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고, 이듬해 기증된 300대는 현지 대사관과 NIA의 지원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 2년 연속으로 지원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지만 용케 성사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성취도 느꼈다. 이 기회를 통해 NIA의 편견 없는 지원에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학교 컴퓨터 보급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컴퓨터 1대 보급’이라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교육부 정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과

학기술차관과 김병섭 주엘살바도르 대사를 비롯하여 약 40여 명의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1월, 교육부에서 기증식이 있었다. 인사말에 나선 차관이 나에게 “casi salvadoreño(까시 살바도레뇨, 거의 엘살바도르 사람)”이라며 감사의 말을 건넨다. 까칠하기로 소문난 차관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니 ‘엘살바도르를 위해 힘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엘살바도르 경찰과 동료들이 안겨 준 즐거운 경험

한국에 있을 때는 수년 동안 해변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다. 교통 체증을 생각하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평생 못 갔을 바다를 엘살바도르에서 원 없이 구경할 수 있었다. 첫 해 임무가 끝나고 재계약을 하러 한국에 가기 전에 사무실 동료들과 해변에 갔다. 점심을 먹고 해변을 걷고 있는데 동료들이 나에게 오라고 했다. 가 보니 경찰 세 명이 인명 구조용 제트 스키를 끌고 오고 있었다. 동료들이 경찰에게 내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태워 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아마 한국이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인명 구조용을 관광용으로 이용하다니.... 아마 내가 자신들의 나라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동료들의 말이 제대로 먹혔던 모양이다. 어쨌든 덕분에 기억에 남을 즐거운 경험을 했다.

운전사와의 대화에서도 배운다

아마 교육부에서 나만큼 교육부 운전사들을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3년 동안 아침마다 운전사들의 도움을 받아 출근을 했는데, 거의 매일 운전사가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사를 알게 되었다. 새로 온 젊은 운전사는 내가 다른 운전사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며 놀라기까지 한다.



해변에서 경찰 제트 스키를 타고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약 20분 거리로 차가 많이 막힐 때에는 30여 분이 걸린다. 스페인어를 전혀 못할 때에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4~5개월쯤 지나 인사도 하고 더듬더듬 몇 마디 주절대니 반색하며 어려운 스페인어를 건넨다. 대충 눈치로 몇 마디 주고받고는 금방 대화가 끊어진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뻘뻘해져 내가 먼저 말을 걸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는 혼자 생활하는 내게 가족들의 안부를 묻거나 엘살바도르에 애인이 없냐는 등 실없는 농담도 스스럼없이 한다. 3명의 아내가 있었던 운전사는 자기 동생은 아내가 5명이며 자식이 23명이라며 자랑을 했다. 자신은 첫 번째 아내에게는 생활비로 매월 30달러, 두 번째 아내에게는 매월 100달러를 준다고 했다. 왜 두 번째 아내에게 더 많이 주느냐고 물었더니 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단다. 그렇다면 과연 아내가 5명이라는, 자식이 23명이라는 동생은 어떻게 처신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한번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운전사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까친봉(cachinbon)’이라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의미를 물었더니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엘살바도르에서만 사용하는 은어라고. 아마 우리말로 “기분 짜진다”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았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더니 모두들 파안대소를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아침마다 운전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엘살바도르의 문화와 언어 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3년이라는 여정을 마치며...

3년의 임기가 끝나기 이틀 전,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외부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장관 비서가 전화를 해서 나를 찾았단다. 장관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귀국 인사 차 담당 과장이 장관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장관의 일정 때문에 확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다. 장관은 내가 엘살바도르에서 보낸 3년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마지막으로 조언을 부탁해 왔다. 이에 “종업원들의 의지와 주인 의식이 부족하다. 간부들이 불필요한 업무에 너무 바빠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을 말했더니 교육부 혁신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내가 귀국한 뒤 교육부는 조직이 개편되었고 내가 추천한 인물은 핵심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장관과의 이별 악수를 나누면서 “한국에서도 당신의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했더니 꼭 지켜봐 달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였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엘살바도르 교육부 동향을 가끔 듣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볼 일인 듯하다.

장관을 만나기 전 과학기술차관을 먼저 만났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그녀지만 그날만큼은 이웃사촌처럼 느껴졌다. 환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홍보 직원이 사진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엘살바도르 교육부 웹사이트에 내 기사가 나왔다. 3년 동안 엘살바도



1) 교육부장관 접견 후. 왼쪽은 행정국장 2) 과학기술차관 접견 후 3) 직원들이 선물한 감사패

르를 도와준 고마운 한국인 자문관이 곧 떠난다고...

담당 과장에게 귀국 전에 사무실 동료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반색을 하며 직원 대부분이 좋아하는 치킨 가게의 메뉴를 추천해 준다. 봉사단원 8명을 포함해 약 40여 명이 교육부 회의실에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런데 점심을 먹기에 앞서 나를 위한 깜짝쇼를 숨겨져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들까지... 특히 작은 감사패와 3년 동안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브로마이드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3년간의 추억이 담긴 브로마이드

“한 대의 기계가 50명 평범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범한 한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다” 부족한 나를 그렇게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해 준 그들이 오히려 고마웠다. “세노르 손 (Sr. Son), 우리도 한국처럼 될 날이 오겠습니까?” 나의 대답은 “Of course, someday!”이다. 지난 3년간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었던 곳, 작은 힘이나마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곳,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또 하나의 고향으로 기억될 곳, 엘살바도르. 그곳과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엘살바도르
손 경 호**

- 경북대학교 / 전자공학 / 학사
- 前 삼성전자 근무
- WFK NIPA Advisors 엘살바도르 MINED 파견